

Come and See

* 3/29(월) 요한복음 1 1-5장

1-9장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 1-5장 Come and See

6-9장 너희도 가려느냐

10-17장 그리스도인의 언약

10-13장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4-17장 그리하면 이루리라

18-21장 그리스도인의 사명

18-21장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Before 출치며 읽기

“와서 보라” 누가 초청했고,
누가 그 초대에 응했는지
표시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After 묵상하기

나는 “와서 보라”
초청하지 않고서는
못 배깁니까?

“와서 보라(1:39).”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을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어부, 다혈질의 급하고 거친 성격의 소유자를
게바(반석, 베드로)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롬 2:11).

안드레를 곧바로 따라 나선 베드로와 달리,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반문합니다.

그의 부정적인 반응에 실망하거나 응수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1:46).”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경험이 논쟁보다 유익함을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려면 그분께로 와서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를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십니다(2:24-25).

주님과 달리,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1:36), 랍비(1:38), 메시야(1:41),

하나님의 아들(1:49), 이스라엘의 임금(1:49)

예수님을 알아감에 따라 그분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이 자랐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여러 이름표 중에 ‘내 마음속에 저장’ 된 이름은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나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습니까?

제자가 되어 다시 “와서 보라!”는 메아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바돌로매입니다.

참고도서

HOW주석

IVP성경배경주석

LAB주석

WBC주석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통성경 길라잡이

하루만에 훠뚫는 성경관통

사마리아 작은 동네 수가, 사람이 두려운 한 여인이
햇볕이 따가운 여섯 시(정오)에 ‘홀로’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선한 때 여러 여인들이 ‘함께’ 우물에 왔습니다.

그녀는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타의에 의한 배제와 더불어 그녀 스스로도 자신을 격리시켰습니다.
사람과 왕래 없이 살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을 건네십니다.

그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4:9).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4:10). 문화적, 역사적 한계를 초월하는 분이십니다(8:23, 58).

그녀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법의 물’을 그분께 요청했습니다(4:13-15).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4:26).”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우회적이거나 암묵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요 4:29-30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동이를 챙길 겨를이 없습니다. 숨어살던 동네로 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합니다.
어둠 속에 살던 여인이 대낮의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정오에 홀로 물을 길러 오던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투성이’였던 익명의 여인.
그녀를 통해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갈증을 느낍니다. 갈증으로 인해 자기만의 물 길기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 길기는 언제나 갈증의 반복으로 귀결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로 인해 별난 개인사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목마른 자를 와서 마시도록 초대하십니다(7:37-38).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아 속으로 움츠러들던 시각이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두운 내면을 조여 오던 자의식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Come and See!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로 와서 쉼을 얻으십시오.
삶의 무게를 홀로 지는 것은 너무 버겁습니다.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명예를 메십시오(마 11:28-30).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십니다.